한국현대사의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0주차. 4·19 혁명 1강. 원인과 결과





- 1. 4·19 혁명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?
- 2. 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?





- 1. 4·19 혁명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- 2. 4·19 혁명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1강 원인과 결과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혁명은 왜 일어나는가?
- 나는 지금까지 4·19 혁명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?

✓ 4·19는;

- ➡ 처음으로 국민 대중이 최고 권력자 축출
- ➡ 새로운 권력을 창출한 중대한 사건
- ➡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 무너뜨림
- ➡ 민주주의 발전에 이정표가 된 사건





권위주의 국가(authoritarian states)

- 독재자나 그 측근, 파시스트당이나 공산당, 군부, 혹은 부유한 기업가집단에 의해 운영될 수 있음
- 권위주의국가는 개인적 자유와 민주적 선거에의 요구를 억압하기 위해 경찰력과 군사력을 사용함
- 권위주의적 지배자는 이전에 자율적이었던 조직체와 지배 엘리트 밖에 존재하는 이익집단에 대해 국가 권력의 행사를 더 증가시키고자 함
- 또한 국가를 통제하는 자본가들의 부를 증식시키거나, 비자본주의적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엘리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경제활동을 규제하고자 함

- ✓ 4·19의 직접적인 원인
 - → 3·15 부정선거
 - ➡ 1952년, 1954년의 연이은 불법 개헌, 민주주의의 타락, 경제적 침체
 - ➡ 야당인 민주당이 1960년 정부통령 선거전에서 강력한 도전
 - ➡ 이에 대규모 부정선거 자행
 - ➡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항거 시위, 시위대에 발포
 - ➡ 전 국민적 저항



- ✓ 4·19의 결과
 - ➡ 대통령의 하야 선언, 퇴임, 망명, 집권여당 자유당 해체
 - ➡ 허정 과도내각, 내각제 개헌, 민주당 정부 출범



✓ 4·19 발생의 구조적 원인

- → 이승만 일인 지배국가와, 그리고 민주당 및 도시 시민계층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 사이에 힘의 균형 변화
- ➡ 이승만 정부가 장기집권, 부정부패, 정치적 독재, 경제적 낙후로 인해 국민의 지지 상실
- ➡ 반면,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 획득
- ➡ 1956년 정·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 당선
- ➡ 힘 균형의 변화에는 도시 세력의 사회·정치적 비중의 팽창이 작용
- ➡ 이승만 정권은 정치권력 유지하기 위해 폭력과 정치적 조작에 의존
- ➡ 정치체제의 근본적 수정이 없는 한 정권 유지는 어려운 상황
- →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3월 15일 정·부통령 선거에서의 대규모 부정
- ➡ 이를 계기로 잠복해 있던 국민의 불만 폭발



- ☑ 국민적 불만의 폭발 주도세력으로서의 학생은;
 - ➡ 새로운 세대의 대변자로 수적으로 크게 팽창
 - ➡ 서구의 진보적 아이디어들을 가장 먼저 수용, 사회적 정의감
 - ➡ 도덕적 이상과 열정, 그리고 행동력으로 무장
 - ➡ 도시 시민과 언론을 비롯한 전 국민적 지원 획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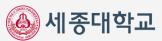
☑ 국가는;

- ➡ 군과 경찰 등 공권력 보유
- ➡ 계엄령에 동원된 군은 시위대에 대한 발포 거부
- ➡ 정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와해에 역할 담당
- ➡ 국가는 경찰력과 깡패조직 동원, 시위 진압
- ➡ 전국적 시위를 통제할 수 없었음



세종대학교

- ✓ 국가의 위기 대응능력
 - ➡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학생의 그것에 비해 열세
 - ➡ 때문에 국가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음
 - ➡ 이 경우 국가는 도전세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함
 - ➡ 필요한 개혁 조치 단행
 - ➡ 사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주도
 - ➡ 아니면 최소한 거기에 대응해 나가야 함



- ✓ 이승만 정부의 대응능력
 - ➡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
 - ➡ 폭력 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
 - → 그 과정에서 학원 민주화, 부정선거 규탄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도전 목표가 정권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
 - ➡ 국가는 학생들의 시위를 공산주의자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
 - ➡ 경찰력 동원하여 폭력적 진압
 - ➡ 폭력 진압은 학생들의 분노 고조, 일반시민들의 가세 초래



- ☑ 폭력 진압은 사태 확대에 또 하나의 촉매제
 - ➡ 4월 11일 고등학생 김주열 시체 발견
 - ➡ 4월 18일 반공청년당원들에 의한 고려대학교 학생 습격 사건





[부산일보의 김주열 군 사망 기사]

[고려대생 피습사건]



※ 출처1: 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40068.html ※ 출처2: https://m.chosun.com/svc/article.html?sname=photo&contid=2019041900464#Redyho

- ☑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 상실
 - ➡ 경찰력은 시위 군중을 진압할 능력 상실
 - ➡ 학생과 일반 시민의 힘이 경찰의 물리력 압도
 - ➡ 4월 19일 일어난 대규모 시위는 부정선거 규탄보다는 정권퇴진 요구
 - ★ 소규모의 제한된 목표로 시작된 운동이 대규모의 전국적 정권퇴진 운동으로 발전



☑ 정권의 무능력

- → 4월 혁명의 전 과정에 걸쳐 이승만과 자유당은 시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
- ➡ 시위의 원인이 이 정권 하의 정치·사회적 모순에 근본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
- ➡ 이에 따른 안일한 대응은 결국 이 정권의 완전한 붕괴로 귀결



학습정리

- 4월 19일 전후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름 짓기는 역대 정권 의 정치적 목적에 좌우된 경향이 있다.
- 폭력 진압은 사태 확대에 또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.

제한된 목표로 시작된 운동이 대규모의 전국적 정권퇴진 운동으로 발전했다.